

지역의 오로지 전문 수제 직방직업을 고집하는

지리산 아생치로 만듭니다

• 동원수산업조합 한국전통식품개발사업
• 우리 자연의 지혜를 통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보호/지역 발전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려를 크게 세우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 빅만은 빅만은행으로
• 빅만은 빅만은행으로
• 빅만은 빅만은행으로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형 / 발행인: 김관진 /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발기 2539년(서기 1995년) 9월 1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학·현대학·세계학

금주의 법구

어려운 수행을 능히 참아내고 행하면 부처님같이 존경받는다. (발심수행장)

법회 안내

- 철보사 (02)732-7498
- 거사법회 매주 일 오전9시
장안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종고동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낙산 원각사 (02)742-0085
-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초8법회 매월12(음) 오전10시
수계법회 매월 1일 오전12시
클문정사 (0351)866-0849
- 초8법회 매월12(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대전 대웅심인당(042)282-5918
- 경주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자세불사법회 매주 일 오후7시
관주 문민정사(062)222-2202
- 창년법회 매주 일 오후5시
종고동법회 매주 일 오전9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대구 보리원 (063)582-7611



◇ 추석이 가까워 오는데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소떡새 마을. 학생들은 라면을 먹으며 '그래도 추석날은 누군가 장난질을 들고 오겠지'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상처받은 '소떡새' 슬픈 한가위

자비의 손길 끊겨...노보살 한명이 136명 뒷바라지
"새 옷 입고 송편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추석에는 예쁜 새옷 입고 송편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얼마전에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먹을 것이 많았는데 지난 달부터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올해 국민학교에 입학한 종섭이가 라면에 밥을 말아 후후룩 먹어치우며 하는 말이다. 요즈음 소떡새 마을에는 후원금이 꼭 끊겼을 뿐 아니라 자원 봉사자들이 모두 떠나버려 종섭이의 소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떡새 마을에는 종섭이를 비롯 자제장액인 18명, 정신평약이 57명 등 모두 1백36명이 동지를 들고 있다. 가파르려 앞뒤의 과열적인 행위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재갈거리던 원생들의 목소리마저 사라져 소떡새 동지는 추석을 앞두고 더욱 쓸쓸하다.

키작은 민우는 혼자 족우로 불어난 개물가에서 마냥 풀밭 매질을 하고 있다. 60이 넘는 노보살 혼자 1백36명 대가족의 음식을 마련해야 해 카니를 라면으로 배우는 일이었다는 것. 지난 장아에는 9개동의 비닐 움막에 비가 새 잠자리조차 엉망이다.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원생들은 자주 동구부를 서성거린다. 글방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탄 버스가 들어와 맛있는 음식, 장난감, 과자등의 선물을 줄 것만 같기 때문이다.

명절때만 되면 소떡새 마을은 전국 각 사찰이나 사회단체에서 찾아오는 후원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후원자 가족들이 찾아와 선물꾸러미를 나눠 주고 웃음이, 제기차기 등 재미

있는 민속놀이를 함께 해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를 이루었는데... 소떡새 가족들은 이번 추석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란 기대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마침 지난 2일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이 추석을 앞두고 찾아와 원생들에게 이발을 해 주고 목욕을 시켜주었다. 돌보는 사람이 없어 피로해졌던 원생들은 글방 뽀아졌으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기란 역부족인지 쓸쓸한 얼굴들이다.

소떡새 가족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있는 중앙승가대학 범종스님은 "자비손길을 사비비승이 놓락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지만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라며 "어서빨리 이 불쌍하고 오갈데 없는 원생들의 웃음을 되찾아

주도록 자비의 행함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빛나간 어른들로 인해 한바탕 회오리가 지나간 소떡새 마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눈만 깜짝거리며 추석을 맞고 있다.

원주=김준근 기자

관악청소년회관 운영체 선정 '의혹'

투표 관례무시 지명...교계 재검토 요구

청소수선시설을 관리 운영할 경쟁이 정해 없는 단계가 관악청소년회관 운영체로 선정, 의혹이 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타스님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모집 조건과 자격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단법인 온터 두레회(회장 이재우)에게 관악청소년회관 운영권이 주어 진 과정을 살펴 볼때 민선구청장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적지않게 작용했고, 따라서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법타스님은 또한 "관악구청장인 진진행씨(선거당시 민주당 공천) 취임 이후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추진상황은 배일에 가려진 채 지난 8월초 구청장 주관하에 국장급들만 참여 전격적으로 운영권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구청의 국장급들과 구의회위원들, 구내 관련 전문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관례인데 "관악청소년회관의 경우 구두상으로 지시 결정했다"는 것.

법타스님은 "청소년회관의 운영권자 선정과정상에 의혹이 있으니 재검토해달라는 공문을 관악구와 서울시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라 밝혔다. (사)온터 두레회의 이재우회장은 YWCA회장을 역임하는 등 특출한 기독교 신자로서 같은 기독교도인 진진행 관악구청장과는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훼손 개발 정책 결사 반대"

부산법시민 대책위...가두시위등 저지운동

범어사 앞 고층아파트 건립을 비롯하여 최근 부산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각종 개발정책에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어지고 있다.

'금정산 경동아파트 건립지 지위위원회' '백양산 살리기 추진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자연수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2시 부산역광장에서 2천여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제1차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총체적 위기를 맞은 부산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전시민이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13개 단체 대책위원장은 당국의 △금정산, 백양산 아파트 건립 △항원산 위태단지 조성 △소호도, 신선대, 남천만 매립 등 부산시의 구래의연한 개발정책을 비난하면서 친환경정책을 적극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대회를 끝낸 시민들은 부산시청까지 가두시위 행진을 벌여 부산시 주택국장에게 항의서를 전달했으나 이 과정에서 차도로 행진하려는 시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병력 사이에 물싸움이 일어났기도 했다.

한편 이에앞서 지난 1일 밤 어서에서 개최된 '범청년승가대회'에서는 전국의 학인승가 1백여명이 동참해 '범어사 앞 경동아파트 건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가함을 재천명하며 목숨을 건 용병선으로 지지대열의 선두에 설 것'을 표방하고 금정구청까지 민장시위 행진을 벌인뒤 윤석천 금정구청장에 항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인턴뷰 4면)

주제 '관공과 평화' 종교지도자 세미나

한국종교인문학회의와 문화체육부가 공동주최하는 '95 종교지도자 세미나'가 9월14일, 15일 양일간 서울 '한국의 집'과 경기 이천 미탄다호 등에서 개최된다. '관공과 평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는 △남북간 종교교류문제 △종교의 사회 참여 △종교간 갈등 및 치유 △국민정신 계도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각 종단 관계자 1백여명이 참가한다.

특히 추석을 맞아 제막회사를 다룬이 부모님과 어머니를 내세운 광고를 보여주고있다. '이젠 근력도 부차실텐데... 부모님 건강이 저희들 건강이죠' '고향에 들고간 선물보다... 그 깊은 뜻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꽃' 광고가 부모님과 고향을 되새기게 하는가 하면, 한쪽에선 '현대판 고려장'이 충격을 안겨 주기도 했다.

파멸의 문앞에 선 이들

갖고오는데 훨씬 많은 귀경길... 자식을 챙기느라 고생만 하신 어머니... 속깊은 사랑된 연 속깊은 아들이 있다.

"도시생활로 늘 떨어져 사는 자녀들... 행여 바쁜 일 있을새라... '바쁘면 오지말라'... 그 깊은 뜻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꽃' 광고가 부모님과 고향을 되새기게 하는가 하면, 한쪽에선 '현대판 고려장'이 충격을 안겨 주기도 했다.

자랑 아들을 두고도 당고개 관자촌에 누워있는 할머니가 있고, 아예 호적에서 지워진 노인도 있다... 이렇게 버려진 노인들의 수는 시립 영브치에안엔 1천여명, 탑골·장충동 서울소재 4개 공원에서

배회하는 노인만도 하루 1천5백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꽃'이 이어져 있던 자신의 고향을 저버린 아들에게 꼭 들려주고픈 말이 있다.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시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요, 불효한 죄를 범한 사람은 지기도 불효한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한마디 더 있다. "자기는 종족하게 살면서 늙어 쇠약한 부모는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는 파멸의 문이다." <숫타니파타>의 말씀이다.

- 가림법회 매월 마지막일 오전11시
종고동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인동 대원사 (0671)858-2630
-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창년법회 매주 화-목 4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군산 초천사 (0645)445-3769
- 창년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종고동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호국연회사 (0356)85-0688
- 수요법회 매주 수-목 7시30분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염주알로 살생' 청소기 광고 "교계 충격" 10면
추석 연휴 금주 12면 부록 타브로이드 4면 발행

SUPLEX
SUPER EXCELLENT

선경의 세계화전략은 SUPEX추구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시대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세계가 보호막 없는 단일 시장으로 바뀌고 세계 각 기업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합니다. 선경은 이러한 시대를 앞서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계화 전략으로 수펙스를 추구해왔습니다.

수펙스(SUPER EXCELLENT 수준)추구 -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수준에 도전하는 선경의 경쟁우위 전략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